현대북한연구, 17권 2호(2014), © 2014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00~259.

박헌영의 북한군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 연구

고명균(여주 대신중학교)

이 논문은 초대 총정치국장에 박헌영이 임명된 배경을 대내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총정치국은 총퇴각으로 인한 군내 규율 붕괴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담당하는 총정치국장에 이례적으로 남로파의 영수 박헌영이 임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① 총퇴각으로 인한 만주파의 군내 위상 추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권위차용전략(Strategy of Authority Borrowing)', ② 전선 이남 빨치산 투쟁의 영향, ③ 남한 내 지구당 활동과 빨치산 투쟁을 강조해온 스탈린의 권고를 토대로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설립 초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총정치국장 박헌영에 대한 김일성의 '권위차용적 역할 기대'와 총정치국장 직책에 대한 박헌영의 '낮은 기대감'이 주된 이유였다. 박헌영은 총정치국장으로서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취임 후 1년도 안 되어 김재욱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총정치국의 위상은 더욱 추락했다.

주제어: 총퇴각, 총정치국, 박헌영, 권위차용전략, 빨치산 투쟁

1. 서론

오늘날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군부 내 핵심 권력기구로 군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를 매개하며, 실질적인 위상은 인민무력부를 능가한다.[1]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서와 같은 권한으로 군내 선전과 정치지도, 당조직 생활, 간부 인사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한다.[2] 총정치국의 최고 책임자인 총정치국장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집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전통적으로 최고 권력자가 깊이 신뢰하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예외의 인물도 있었다. 초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된 박헌영은 해방 후 남한 공산주의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김일성과는 경쟁관계를 형성하였고, 전쟁 말기에 남로파와 함께 숙청되어 북한에서는 지금까지도 공개적 언급이 금지된 인물이다. 박헌영의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을 밝혀내는 것은 총퇴각 당시 김일성의 정치적 위기 극복 전략과 계파 간 권력관계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헌영에게 군의 주요 직책을 맡겨야만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일까? 총정치국장 임명에 담긴 김일성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정성장은 총정치국장의 당내 직책이 민족보위상, 인민무력부장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총정치국의 위상이 인민무력부를 능가하는 것으로 본다.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13), 31~32쪽.

2) 2010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제49조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사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이 이례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대다수의 연구가 총정치국의 설립 배경을 조명하거나 당·군 관계의 변화 국면 속에서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을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3]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당·군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 속에서 일부 언급된 것이 전부였다. 이 중에서도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서동만, 김용현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와다 하루끼는 총정치국 설립이 군에 대한 정치지도 방식을 소련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박헌영과 허가이로부터 조선인민군의 패배와 괴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세적 입장에 놓인 김일성이 권력 일부를 박헌영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 와다 하루끼의 주장에는 당시 계파 간 권력관계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일성에 버금갈 정도로 전쟁에 적극적이었던 박헌영

---

3) 고재홍은 총정치국의 설립 배경으로 군사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당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과 지도부를 새롭게 재건하라는 스탈린의 조언을 들고 있다. 총정치국의 설립이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 결과 군사단일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군사』, 제53호(2004); 이대근은 조선인민군 내 총정치국의 지위, 총정치국의 내부 구조와 기능을 정밀히 분석하여 당이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장치가 총정치국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대근, "북한군 총정치국," 『북한의 군사』(서울: 경인문화사, 2006); 이신재는 총정치국의 설립 배경을 조·중연합사령부 설치 및 통합지휘권을 둘러싼 북·중 간의 갈등에서 찾는다. 작전지휘권을 상실한 김일성이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총정치국을 설립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군사』, 제83호(2012); 정성장은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총정치국은 권력세습 과정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군대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4)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203~204쪽.

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김일성을 비판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로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전쟁 발발 직후 남한 내 빨치산 투쟁과 무장봉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적극적 방조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박헌영과 남로파의 몫이었다.

서동만은 김일성이 박헌영 및 남로파와의 타협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했다고 보았다.[5] 김용현은 전선 이남의 빨치산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았다.[6] 서동만과 김용현의 주장은 남로파의 영향력과 남한 내 투쟁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연 이 시기에도 김일성이 박헌영과 남로파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남한 내 빨치산 투쟁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많다. 1949년 9월 대공세의 처참한 실패 후 김일성은 남로당의 투쟁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남로파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방조보다는 개전을 목적으로 스탈린을 설득하는 데 박헌영을 활용했다.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때까지 전쟁을 총괄하는 김일성의 보고에 남한 빨치산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담겨 있다.[7]

초대 총정치국장에 남로파의 영수(領袖) 박헌영을 임명한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기간에 총정치국이 설립된 과정과 배경을 이

---

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417쪽.

6)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서울: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56쪽.

7) 김일성은 남반부에서의 당사업과 빨치산 투쟁의 약점을 지적하였고, 허성택과 같은 남로파 당중앙위원들이 빨치산 투쟁 조직에 대한 당중앙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27쪽.

해해야 한다. 이 연구는 총정치국 설립 당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조선인민군 군사지휘 및 정치지도체계의 변화에 주목하려 한다. 먼저, 한국전쟁 발발 이전과 총퇴각 이후 조선인민군의 군사지휘 및 정치지도체계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고, 인민군대 내 당단체를 조직하게 된 배경을 찾아보려 한다. 북한의 공식 문서에서 언급하는 이유 외에 중국인민지원군 참전과 스탈린의 권고 등 대외적 요인과 총퇴각 책임 문제를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이 총정치국을 설립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려 한다.

총정치국의 설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총정치국장에 박헌영을 임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김일성이 얻고자 한 실익이 무엇이었는지를 다각적으로 추론해볼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에 발행된 북한의 주요 문건들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에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정리된 구소련 외교문서, 한국전쟁 중 유엔군에 의해 노획된 문서로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에 보관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총정치국 설립 및 총정치국장 임명과 관련된 밑그림을 그려볼 것이다. 이를 통해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상황들을 검토하고, 임명을 둘러싼 '상황적 조건'들과 군에서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김일성의 '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대내적으로는 만주파의 군내 위상 추락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김일성의 전략, 전선 이남 빨치산 투쟁 강도에 따른 박헌영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전쟁 수행에 대한 스탈린의 권고와 지시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이유를 따져볼 것이다. 이를 통해 초대 총정치국장 박헌영이 맡은 역할들이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 정황을 밝히려 한다.

2. 총정치국의 설립 배경

1) 한국전쟁 기간 조선인민군 군사지휘체계의 변화

조선인민군 창군 이후 정치지도는 민족보위성 산하 문화훈련국에서 담당하였다. 문화훈련국의 주요 임무는 인민군대 내 문화교양사업을 주관하고, 전체 군무자들의 군사규율과 정치사상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것이었다. 문화훈련국 소속 문화부원들은 군사단일제하에서 각급 지휘관들을 정치적으로 방조(傍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군내 정치선전 교육을 담당하면서도 당적 지도와 통제로부터는 상당 부분 독립되어 있었다.[8] 민족보위성 부상 겸 문화부(副)사령관에는 만주파 소속의 김일 총좌가 임명되었다. 문화훈련국의 주요 부서는 ① 간부부, ② 조직부, ③ 선전부, ④ 출판부, ⑤ 총무부, ⑥ 구락부, ⑦ 협주단, ⑧ 기관지 『조선인민군』, ⑨ 적공부 등으로 구성되었고, 하위 위계조직은 각 사단 및 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이르기까지 군사 위계조직에 대응하여 구성되었다.[9]

---

8) 문화훈련국이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던 데에는 창군 이후 북한군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8년 2월 8일 창군 이후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가 아닌 '통일전선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불렸다. 당시 소련공산당의 점령정책이었던 통일전선전략이 북한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당에서는 계파 간 '권력연합적' 형태가 두드러진 반면, 군에서는 만주파가 핵심지휘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김일성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제한하고, 만주파를 중심으로 군을 지휘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은 조선인 부대의 대규모 입북에 앞서 1949년 5월 27일 조선인민군대 내에 '문화부중대장제'를 실시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결정서에는 문화부중대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중대장을 방조하고, 중대장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중대 내 정치훈련 담당 책임자에게 부(副)중대장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부대 운영에서 지휘관의 단일통수를 유지하려 했다. 이는 중국식 '이원통수제'가 아닌 소련식 '군사단일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문화부중대장제는 대대까지 내려가 있던 문화부대장을 중대까지 확대 배치하는 조치로서 조선인민군 내에 소련식의 군사단일제를 정착시키고, 만주파 주도의 정치지도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11] 한국전쟁 발발 이전 조선인민군의 '군사지휘체계'[12]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 조선인민군의 작전지휘 및 정치지도체계는 최용건이 수장으로 있던 민족보위성과 총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13] 군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당으로부터 상당 부분 독립적이었던

---

9)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146~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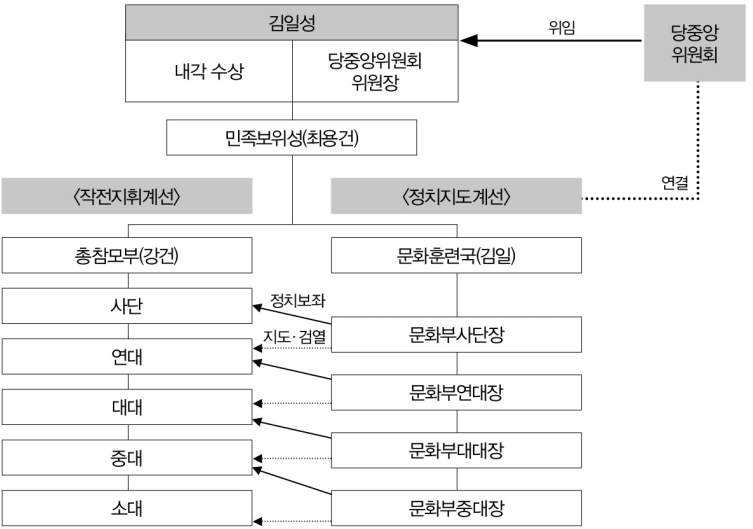
10)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 설치에 관한 결정서," RG242 SA2009Ⅱ, Item37.

11) 당시 조선로동당에 군사 담당 부서가 없었고, 당과 관련된 문제는 민족보위성 문화부상에 위임되었다. 문화부상은 만주파의 김일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군내 정치사업에 만주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274쪽.

12) 필자는 평시와 전시 조선인민군에 대한 지휘와 통솔을 표현하는 가장 포괄적 개념으로 '군사지휘'를 염두에 두었다.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작전지휘계선'과 '정치지도계선'이라는 용어는 '군사지휘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군사지휘관 중심의 '작전명령 지시·이행체계'와 정치군관 및 당단체 중심의 '당적·정치적 지도·이행체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13) 문화훈련국의 수장이었던 김일의 공식적인 직책은 '민족보위성부상' 겸 총사령부 산하 '문화부(副)사령관'이었다.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그림 1> 한국전쟁 발발 이전 조선인민군의 군사지휘체계



자료: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 설치에 관한 결정서," RG242 SA2009Ⅱ, Item37;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147~152쪽;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74~77쪽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문화훈련국이 전담하였다. 문화훈련국은 당중앙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정치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인적 구성에서 문화군관 전원이 조선로동당 당원이었고, 당중앙위 조직위원회와 당 간부부에서 이들의 임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당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14)]

권력승계 문제』, 13쪽.

14) 고재홍은 오기완(한국전쟁 당시 제105 전차사단 정치군관)과의 개별 면담과 『신동아』 1966년 5월호에 실린 오기완의 글 "소련유학생으로 뽑히기까지"를 토대로 당시 문화부 지휘관 100%가 조선로동당원이었고, 당중앙조직위원회와 간부부에서 임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

당중앙위원회는 군사지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 수상 김일성에게 위임하였다. 당시 조선로동당 내 군사담당 부서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도 조직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이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당적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군 통수권을 행사했다. 김일성은 민족보위성을 통해, 총참모부에서 각급 부대로 이어지는 작전지휘계선과 문화훈련국에서 각급 문화부로 이어지는 정치지도계선을 총지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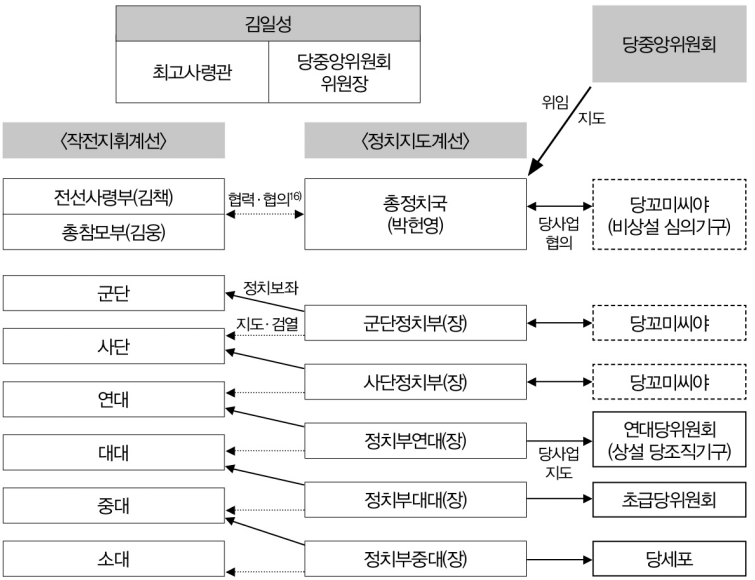
문화부 지휘관의 주요 임무는 군사단일제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것이었다. 각급 문화부 지휘관은 군사지휘관의 명령에 대해 복종할 의무와 함께 예하부대에 대하여 군사지휘관 명령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 후, 적군 창설 당시 '정치위원'(Commissar)이 지녔던 부서권한, 군사지휘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와 통제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군사지휘관에 대한 정치보좌 역할이 주축이었지만 문화부 지휘관들이 작전지휘계선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각급 문화부 지휘관은 상급부대 문화부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했고, 부대의 정치사상 상태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게다가 군사지휘관과 마찬가지로 부대원들의 직속상관으로서 정치선동사업 및 선전문화 교양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15] 그뿐 아니라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장성사업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화선입당(火線入黨)' 청원에 대한

의 위상과 역할," 148~149쪽.

15)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 설치에 관한 결정서," RG242 SA2009Ⅱ, Item37.

<그림 2> 총퇴각 이후 조선인민군 군사지휘체계



자료: 김일성,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1950년 10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제6권, 148쪽;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사업 규정," 『북한군사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527~529쪽;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89~91쪽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접수와 제의, 비준권 및 임시당원증명서 수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17]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전쟁 발발 이전 조선인민군

16)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는 전시 주요 사업 집행에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17) "전선에서 입당지원자의 입당청원서는 문화부중대장이 접수하고 검토하여 문화부연대장에게 제의한다. 문화부연대장의 제의에 대하여 문화부사단장이 비준하여 당문건(임시당원증명서 및 보고표)을 작성·수여한다" 허가이,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결정서 제44호(1950.8.2)－전선에 있어서의 인민군대내의 신입당수속에 대하여," 『성분지시분철』(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RG242 SA2006 Batch301, Item37.

내부에 작전지휘계선과 정치지도계선이 군사단일제의 틀 속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던 1950년 10월 21일 대유동 광산 분광(分鑛) 사무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대 내 당단체를 조직할 것과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각급부대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군단에서 대대급까지 각 부대의 문화부가 정치부로 개편되었다. 구분대와 부대들에 정치부 부대장, 구분대장 직제가 신설되었다. 당단체도 조직되어 중대에는 당세포, 대대에는 대대당위원회, 연대에는 연대당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사단과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조직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당 꼬미씨야(komissiya)'를 두었다.[18] 총퇴각 이후 변화된 조선인민군의 군사지휘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군사지휘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전쟁 초기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민족보위성의 역할이 후방지원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19] 효율적 전시작전 수행을 위해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20] 군에 대한 당적 영도 강화를 목적으로 총

---

18)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10.21),"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48쪽.

19) 전쟁 초기 소련대사 슈티코프(Terenti Shtykov)와 소련 군사고문단장 바실레프는(A. M. Vasilevsky) 김일성에게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를 창설하고, 민족보위성은 예비 부대 및 새로이 편성된 부대의 훈련, 공화국의 북부 지방에 대한 상륙 저지 업무, 필요 물자(군량, 연료, 수송, 탄약 등)를 작전 중인 군부대에 공급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에프게이 바자노프(Evgenii Bajanov)·나탈리아 바자노바(Natalia Bajanova),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옮김(서울: 열림, 1998), 80~81쪽.

20) 군사지휘계선에서 민족보위성의 배제는 전쟁 기간 민족보위상 최용건의 직책

정치국이 설립됨에 따라 정치지도계선도 크게 변화하였다.[21] 당중앙위원회는 총정치국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군내 당조직 및 정치지도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총정치국장에게 위임하였다. 총정치국은 조선로동당의 군내 부서로서 군내 당조직사업과 당장성사업, 정치교양사업을 총괄 지도하였다.

군내 당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총정치국과 군단, 사단에는 당꼬미씨야가 설치되어 군내 입당과 출당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총정치국장은 총정치국 내 당꼬미씨야 성원의 임명을 제의(提議)할 수 있었고, 전시행정에서는 연합부대 당꼬미씨야 성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었다.[22] 비상설 심의기구였던 당꼬미씨야는 정치부장의 지도하에 사업했으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당사업 관련 심의에 제기된 정책안은 대부분 정치부에서 미리 승인하였고, 당꼬미씨야는 주로 협의기구로서 기능했다.[23]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최용건은 연합군의 대규모 상륙 첩보가 감지된 9월에 서해안 방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총퇴각 시기에는 중국 통화(通化)에서 조선인민군 보조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패잔병을 수습하고, 새로운 군단을 편성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이문당, 1991), 156쪽; 정성장은 남침 일정에 따른 부대 이동을 위해 1950년 6월 10일에 열린 '비밀군사회의'에 최용건이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민족보위성이 후방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12~13쪽.

21) 인민군 내 정치지도기관의 공식 명칭이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으로 바뀌었다. 이전과 달리 총정치국은 민족보위성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군조직 내 독자적인 정치지도계선을 구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 『북한군사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527~528쪽.

23) 조선인민군 사단정치위원이었던 려정(呂政)은 사단 이상에 설치된 당꼬미씨야를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는 기능조직'이라고 표현하였다. 려정, 『붉게 물든 대동강』(서울: 동아일보사, 1991), 98쪽.

사단 이상에서는 당꼬미씨야를, 연대급 이하에서는 당위원회를 조직한 이유는 부대별 역할 구분에 따른 것으로, 각급 정치부의 권한 및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 초기 대다수의 '전투 임무'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담당하였고, 군단과 사단은 예하부대의 전투 및 부대 이동, 부대 운용 등을 지휘·감독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24] 1949년 7월에 전차 및 포병 부대로 증강된 보병사단의 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대부대 기동연습이 실시되었다. 아직 군단사령부가 창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동연습을 통해 군단 지휘소와 사단 지휘소의 지휘 및 참모활동 절차를 숙달시켰다.[25] 195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그동안의 훈련과 검열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기동연습이 모든 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26] 그러나 개전 초기 사단급 이상 부대의 작전은 훈련 부족, 군사지식의 한계, 군사지휘관의 경험 및 역량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27]

연대급 이하 부대를 중심으로 공격과 방어, 행군과 도하, 실탄사격

---

24)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제작한『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에 입각하여 1949년에 소대에서 사단에 이르기까지 전투훈련이 실시되었다. 전투훈련의 주목적은『보병전투규정』에 기반을 둔 공격과 방어, 포병 및 공병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연대급 훈련을 중심으로 숙달시키는 것이었다. 훈련으로 숙달된 연대급 전투능력은 '38선 충돌'을 통해 완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초기 인민군은 신속하게 진격할 수 있었다. 장성진,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군사』, 제83호(2012), 24~27쪽.

25) 류제승,『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서울: 책세상, 2013), 148~150쪽.

26) 박명림,『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2003), 349~350쪽.

27) 김일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1950년 7월 8일 스탈린에게 전선사령부 및 2개 군단 본부에 25~30명씩 군사고문단을 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에프게이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82쪽.

전술 등의 전투훈련이 진행되었다.[28] 연대급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에서는 보병 연대와 하급 부대의 전투훈련 지침 및 작전수행 시 고려 사항들을 여러 편의 소논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중대 및 소대급 작전 지침, 연대 지휘소 조직과 설비, 보병연대의 행군과 조우전투 시 정찰계획 수립, 연대 참모장의 공작지도 작성법 등의 내용이 소련군의 군사 경험과 인민군의 과거 훈련 내용을 토대로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29] 총퇴각기에 인민군은 대규모의 병력 손실로 부대 편재가 무너졌고, 군사지휘관 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사단급 이상의 작전능력과 연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능력을 전쟁 개시 직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총정치국 및 각급 정치부의 역할도 구분되었다. 총정치국과 군단 및 사단정치부는 예하 정치부의 사업을 지도·검열하고, 부대 내 당조직사업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등 정치지도계선의 '지휘자'로서 기능하였다.[30] 일간지 형태의 기관지를 발행했고, 정치사상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였다. 상급 군사지휘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령을 통해 각급 부대에 하달하였다. 부대 내 당사업 운영과 회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

28) 장성진,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16쪽 참조.

29) 『군사지식』, 제2호(1950), RG242 SA2010, Box3, Item2; 『군사지식』, 제3호(1950), RG242 SA2010, Box3, Item2.

30) 사단과 군단 정치부의 수장은 '정치부장'의 호칭을 사용했다. 정치부(副)대장 호칭에 담긴 '군사지휘관의 정치적 보조자'로서의 의미보다는 '당사업과 정치교양사업의 책임자'라는 독립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치부장 호칭 사용은 총정치국장 교체 후 군사단일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174~175쪽 참조.

요강들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당위원회 및 당총회 조직과 운영, 당위원장의 역할, 회의진행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당단체의 주요 사업을 정치부가 지도하도록 지시하였다.[31] 연대 이하 각급 정치부는 총정치국 및 상급 정치부에서 하달된 지침들을 토대로 일선 부대의 정치지도 및 당조직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정치부의 지도하에 당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당위원회를 통해 전투 임무에서 당원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들이 전달되었으며, 지휘관이 하달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당원들의 토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연대급 이하 당위원회와 정치부는 실제 전투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당적·정치적 방조(傍助)에 충실하였다.[32]

군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군사단일제의 원칙은 유지되었다. 문화부부대장과 마찬가지로 각급부대 정치군관들은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보다 한 계급 아래였고, 군사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치군관들의 위상은 이전보다 신장되었다. 총정치국장으로 박헌영이 임명되었고, 총정치국으로 당적 지도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총정치국 산하 각급 정치부는 해당 부대원들에게

---

31) 사단 정치부에서 작성한 지침서에는 세포위원회 및 세포 총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으로 ① 상급당에서 제기한 새로운 과업의 집행 및 조직 문제, ② 자기 구분대에 제기된 긴급한 전투과업을 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③ 당원책벌 및 입당, 당원들의 신소(伸訴), 건의 내용에 대한 심의 ④ 당분조 생활 및 전반적 당생활에 대한 검토와 비판 문제가 제시되었다. 『세포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그의 집행에 대하여』, RG242 SA2009, Box10, Item15.

32) "월말 사업보고 작성에 대한 지도서－조선로동당 인민군27사7련대 당위원회 조직부(1950.12.20)," RG242 SA2009 Box10, Item#17; "제2대대 당단체 명령집행 협조정형에 대하여," 『정치상학제강철』, RG242 SA2010, Item#59; "조선로동당 제2군단 6련대 2대대 2중대 세포결성 총회 회의록(1950.11.8)," RG242 SA2009 I, Item#72; "조선로동당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중기중대세포 회의록," RG242 SA2011, Item#8-10.

더욱 강화된 정치지도와 당적지도, 검열 및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33] 군관과 하사관, 전사에 대한 개별적인 전투평가 기준을 마련해 전투준비와 전투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도맡았다.[34] 총정치국 산하 각급 정치부장 및 정치부부대장에게 군사지휘관에 대한 '정치보좌' 임무로 최고사령관의 명령, 각급 부대 군사지휘관의 명령과 지시 등에 대한 예하부대 군사지휘관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부여되었고, 이를 어기는 군관들에 대해서는 책벌 및 탈당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35] 원칙적으로는 군사단일제를 유지하려 했지만, 정치군관들이 확장된 권한을 바탕으로 예하부대 군사지휘관들을 감시·통제하게 되면서 갈등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2) 총정치국의 설립 배경

이 연구는 총정치국 설립 배경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검토해보고, 추가 고려 사항들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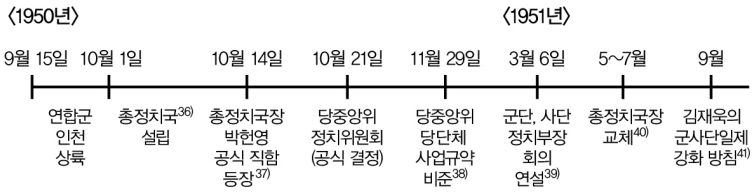
---

33) 박헌영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부수상 겸 외무상, 군사위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당내 공식 서열 2인자로서 자신의 지시와 명령을 당적 지도와 상당 부분 일체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은 설립 초기 총정치국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34) 제825군부대(12사단) 정치부, 『전평요강－1951.1.15』, RG242 SA2012, Item #80.

35) 소대장과 부중대장은 정치부대대장이, 중대장과 부대대장은 정치부연대장이, 대대장과 부연대장은 사단정치부장이, 연대장과 부사단장, 여단장은 군단정치부장이, 사단장은 총정치국장이, 군단장과 군사위원은 당중앙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문제에 대해 책벌과 출당 여부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다. 정치부 및 총정치국에서 승인된 결정은 각급 당단체에서 최종 비준했다.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사업 규정," 『북한군사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528~529쪽.

<그림 3> 초대 총정치국장 재임 기간 총정치국 관련 주요 사안



다. 이에 앞서 총정치국 설립 전후, 초대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재임 기간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 과정을 시기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정치국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벌어진 시점을 정리함으로써, 이 시기에 있었던 총정치국 위상 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고, 총정치국 설치 배경을 둘러싼 일부의 추측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 상륙 이후, 2대 총정치국장으로 김재욱이 임명되어 군사단일제 강화 방침을 밝히는 1951년 9월까지 총정치국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

36) 총정치국의 정확한 설립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의 북한 지도부를 강고하게 재건할 것을 권고하는 스탈린의 전보가 발송된 10월 1일부터 문서상에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공식 직함이 처음 등장하는 10월 14일 사이에 총정치국이 설립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급박한 총퇴각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려는 북한지도부의 정치적 구상이 일부 드러난 것일 뿐,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정치지도체계 개편은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 결정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7) 1950년 10월 14일 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단에 박헌영의 직책이 총정치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10월 15일에는 총정치국장 명의의 지령이 하달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 RG242 SA2012, Box5, Item118.

38) ‘인민군대내 당단체사업 규정’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통과되었다. 총정치국장과 각급 정치부장, 당꼬미씨야와 각급 당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당단체사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 조직과 총정치국 및 각급 정치부의 공식적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었다.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사업 규정,” 『북한군사론』, 527~531쪽.

(1) 북한 공식 문헌상의 설립 배경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 상륙 이후 전선은 급격히 무너졌다. 인민군 지도부는 인천상륙작전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비 태세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부분의 군사역량은 낙동강 전선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42] 인민군은 연합군의 서울 진격을 완강하게 막아섰지만 9월 28일 서울을 내주었다.

---

39) 김일성은 군단 및 사단 정치부장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지휘관의 명령 하나만으로는 결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군내 정치일군들은 군사지휘관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며, 정치부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일군들은 군사지휘관을 앞에 내세우고 그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잘 보장해주며 결함이 나타날 때에는 제대로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일성은 연설 내내 정치부원들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군내 정치지도기관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조선인민군 군단, 사단정치부장회의에서 한 연설(1951.3.6)," 『김일성 저작집』, 제6권, 314~329쪽.

40) 서동만은 1951년 7월 27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인민군 내 당조직 설치 및 정치기관들의 사업정형에 대해 김재욱이 대표로 보고한 사실을 토대로, 이 기간에 총정치국장이 김재욱으로 교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재욱은 그 이전부터 총정치국장 직무를 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1951년 5월 6일 방호산이 이끄는 제5군단(제327군부대)에서 열린 '제1차 전투영웅및모범전투원대회'에 김재욱 명의의 축전이 도착했다. 축전의 발송자가 총정치국장 박헌영이 아니라 부국장 김재욱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총정치국장 직무를 김재욱이 대리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1951년 6월 27일에 '총정치국장 대리' 김재욱의 지령이 예하 정치부와 당단체위원장들에게 하달된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419쪽; 제327군부대 정치부, 『전위』, 1951년 5월 10일, RG242 SA2012 Box5, Item#130;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대리 김재욱,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지령 제104호－정치기관 정치부대장 및 당단체들의 민청단체 사업지도에 있어서의 결함퇴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1951.6.27)," RG242 SA2012 Box6, Item#14.

41)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 내 로동당단체들의 제과업: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에게 주는 참고자료』(평양: 조선인민군총정치국, 1951.9), RG242 SA2012, Item#114.

4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 420쪽.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은 회복 불능의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총퇴각 과정에서 나타난 무질서와 혼란은 1950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전부대원들에게 하달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43]

> 우리의 부분적 군관들은 악화된 새 정세에 당황하여 적과의 전투에서 비겁성을 나타내며 군대의 지휘를 버리고 적과 투쟁할 대신에 변사로 가장하고 은신하였으며 무기를 내어 버리며 견장을 떼어버림으로써 적으로부터 자기의 추악한 생명을 구원하였다. 그와 같은 부대들의 지휘관들과 정치간부들은 병사로부터 리탈되었으며 군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치하여 적절한 방책을 취함으로써 군대의 사기를 양양시키며 경각성을 높이며 비겁분자들과 우울분자들을 반대하는 등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부대들을 장어전에 유효하게 동원하지 못하였다.[44]

김일성은 총퇴각 과정에서 인민군 군관들이 보여준 무질서한 모습에 격노하며 더 이상 일보도 퇴각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병사와 하사군관들을 지휘관으로 선발해 독전대를 조직하여 전선에서 도주하거나 요언(妖言)을 퍼뜨리는 자들을 적

---

43) 총퇴각 시의 무질서한 혼란상에 대해 전 사단정치위원 여정(呂政)은 자신의 수기에서 "군관들 중에는 긴 머리칼을 깎아버리고(하전사로 보이게 하려고), 군관신분증과 당증을 땅 밑에 파묻거나 태워버리는 사람이 많았다. 자기만 살겠다고 부대를 버리고 달아난 지휘관이 비일비재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의 모든 항일빨치산 출신 사람들이 도망하는 무리에 끼인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려정, 『붉게 물든 대동강』, 37쪽.

4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 RG242 SA2012, Box5, Item#118.

발해 처벌하도록 지시하였다. 총퇴각 과정에서 인민군 일부 부대의 혼동과 무질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당에 의한 군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군내 당단체가 조직되었고, 군사단일제하에서 당중앙의 정치적 지도를 인민군 내에 접목시켜줄 정치적 집행기관으로서 총정치국의 설립이 공식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는 총정치국의 설립 이유에 대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총퇴각 상황을 들고 있다. 총퇴각의 급박한 상황에서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군내 규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 제시된 이유에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그 외의 요인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관련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총정치국 설립 배경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 조·중연합사령부의 구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었다. 대부분이 북한 공식 문헌상의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그쳤다. 이신재의 연구는 조·중연합사령부 설치 시 통합지휘권을 둘러싼 북·중 갈등이 총정치국 설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장의 요지는 조·중연합사령부 구성으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작전지휘권 상실을 우려한 김일성이 차선책으로 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방어적 장치가 총정치국이라는 것이다.[45] 하지만 그의 주

45)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38쪽.

장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시점과 총정치국 설립 시점을 비교해봤을 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는 총정치국의 설립 시점을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공식 결정한 10월 21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공식 문서상에 총정치국이 등장하는 날짜는 14일이다. 총퇴각 국면에서 군내 규율 붕괴와 무질서를 막기 위해 최고사령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세부 지령들이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명의로 하달되었다. 당에서의 결정 이전에 이미 총정치국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시점인 10월 19일보다 빠른 것으로, 중국군 참전 이전에 이미 총정치국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김일성이 총정치국 설립을 고민하던 기간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는지, 중국군과의 작전지휘권 통합 문제를 염두에 두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김일성이 조·중연합사령부 설치로 자신의 작전지휘권이 이관될 것을 예측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을 결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0월 4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내부의 반발을 누르고 참전을 결정했지만, 10월 12일 소련 공군이 지원 연기를 통고하자 출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참전 재검토에 들어갔다.[46] 더 이상 상황을 지체시킬 수 없었던 마오쩌둥은 이튿날 참전을 최종결정하였다.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김일성에게는 중국의 참전만이 희망이었다.[47] 하지만 중국의 참전을 확신하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산

46)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Korean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 90.

47) 1950년 10월 13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참전 유보 결정을 이유로 김일성에게 잔여 부대를 소련이나 중국으로 탈출시키도록 제안하였다. "Ciphered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Kim Il Sung"(October 13, 1950), Wilson Center Digital

재했고,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나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48] 중국의 참전 여부마저 불투명했던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 중국의 참전 이후 자신의 작전지휘권 상실을 우려해 총정치국을 설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김일성을 처음 만난 10월 21일에 작전지휘권 통합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49] 작전지휘권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1차 전역 기간이었다.[50] 전역 당시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물자 이동과 교통, 운수 등 전시 지원에서 조·중 양군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오인 총격사건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나타났다. 작전지휘권 통합을 둘러싼 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 스탈린이 중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2월 7일 조·중연합사령부가 구성되었다. 총정치국의 설립이 작전지휘권 이관에 대한 방어적 선택이라는 가설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744(검색일: 21 April. 2014).

48) 10월 19일 단둥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임박소식을 접하게 된 내무상 박일우는 감격에 눈물을 글썽이며 함락 직전인 평양 상황과 당과 정부의 이전 소식 등 현재 시급한 전황을 펑더화이와 지휘관들에게 설명하였다. 당시 박일우는 중국의 참전을 설득하기 위한 연락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홍쉐즈(洪學知),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서울: 고려원, 1992), 21~36쪽.

49) 10월 21일 펑더화이와 김일성이 대유동에서 첫 대면했을 때, 쌍방은 모두 지휘를 통일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단지 양쪽 군대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션즈화(沈志華),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옮김(서울: 선인, 2010), 384쪽.

50) 1차 전역 기간 중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협조가 부족하고, 언어가 서로 다르며, 지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고, 북한의 군대와 인민들이 퇴각하면서 도로를 봉쇄하는 등 인민지원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590쪽.

은 상당히 매력적이나, 앞에서 밝힌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김일성의 구상 속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따른 문제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련의 영향

총정치국이 설립된 데에는 소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총퇴각 당시 김일성은 소련의 공군지원과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51] 하지만 서신 접수 후 소련의 방침은 실질적 군사지원보다는 전술적 조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에 압력을 가해 전쟁 개입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체류 중인 소련 대표들에게는 피난을 지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위기에 빠진 북한지도부를 섭섭하게 했다.[52] 그러나 스탈린(Joseph Stalin)에 대한 서운함과는 별개로 소련군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소련군은 사회주의 최강의 군대였고, 소비에트 군사과학은 조선인민군의 교과서였다.[53]

---

51) "Ciphered Telegram from DPRK Leader Kim Il Sung and South Korean Communist Leader Park Heon Young to Stalin(Via Shtykov)"(September 29,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 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58(검색일: 23 April. 2014).

52) 모스크바는 인천상륙작전 후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다음 방침을 세웠다. 첫째, 북한의 군사행동 수행을 돕기 위한 전술적 조언을 지속할 것. 둘째, 한반도에서 소련 대표들의 피난을 시작할 것. 셋째, 남쪽에 진주한 북한 군부대와 지도부들의 탈출 계획을 작성할 것. 넷째, 장차 일어날 전투에 대비, 군사력을 재정비할 것. 다섯째,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그들의 전쟁 개입을 요구할 것. A. V. 토르쿠노프(Anatory Vasilievich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172쪽.

53) 조선인민군은 소련군의 군사·기술 차원의 군사교리뿐만 아니라 정치 차원의 군사교리도 적극 수용했다. 김일성의 연설에 자주 등장하는 추격 등 공격 속도의 가속, 기동부대와 포병의 협동, 빨치산 전투부대의 적 후방 지역 교란 활동, 적 포위 기동에 이은 유생 역량 격멸 등의 원칙은 소련군의 작전 원칙과도 동일하였다.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116~117쪽.

1950년 10월 1일 스탈린은 소련대사관에 보낸 전보에서 북한 지도부의 재구성을 강권한다. 총퇴각 상황에 직면한 북한지도부에게 견고한 방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강건한 지도부로 재건할 것을 주문하였다. 스탈린은 구체적인 지시 사항에서 "지도부 내부의 불확실한 분위기를 종식시키고, 공화국 방어를 위해 선정된 문제들에 대한 책임 여부와 지도부 성원 각각에 배정된 특별한 임무들에 의거하여 지도부 동지들의 의무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모든 전력을 동원해 국군과 연합군의 38선 돌파를 방어할 것과 후방의 빨치산 투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스탈린은 슈티코프(Terenti Shtykov)에게 즉시 김일성과 박헌영을 방문하여 자신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수일 내에 김일성의 답신을 보내라고 명령하였다.[54] 총정치국이 설립되는 데 스탈린의 권고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퇴각 당시 군사규율이 붕괴된 처참한 상황 속에서 북한 지도부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라는 스탈린의 권고는 강력한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군사규율 붕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던 김일성이 스탈린의 권고를 계기로 기존의 정치지도 방식을 소련식 총정치국에 의한 지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55]

---

54) "Telegram from Feng Xi(Stalin) to Soviet Officials in Pyong Yang"(October 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12(검색일: 25 March. 2014).

55) 1951년 5월 군 정치기관과 당조직사업의 강화를 위해 정치사업 조직의 기본문제들에 대한 일개 과정의 강의가 소련고문단에 의해 준비되었고, 총정치국 주관하에 군관학습 과정에서 진행된 사실들로 판단해볼 때, 소련이 북한의 총정치국 설립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83~84쪽.

(4) 무력통일 실패의 책임 문제

총정치국 설립에는 무력통일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전선 상황이 곤란해지면서 김일성의 군사 지휘 능력에 대한 지도부 내부의 의심과 우려가 제기되었다.[56] 연합군의 인천 상륙으로 전황이 급격하게 뒤바뀐 상황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일성이 총퇴각의 책임으로부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총퇴각 당시 그가 보여준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한 호소', '책임 전가', '신경질적인 언쟁'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1950년 9월 29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서 김일성은 미 공군 항공기 1,000여 대가 전선 상공을 밤낮으로 누비며 군사장비, 철도, 도로, 통신선을 파괴하고 있고, 공급과 통신이 두절된 인민군 부대는 총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57] 연합군 공군력의 압도적 우세와 인민군의 물리적 열세라는 '비가역적 상황'을 총퇴각의 이유로 제시함으로써 최고사령부의 전략 실패의 책임은 가려졌다.

10월 30일 최고사령부 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총퇴각 당시 일부 지휘관의 규율위반 및 명령불이행 문제를 지적하였

---

56)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8월 31일 자 비밀 전문에 의하면, 김일성은 자신의 전쟁 수행에 대한 일부 정치위원들의 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북한의 전쟁 승리에 대한 믿음과 공군 조종사 지원 내용을 담은 스탈린의 친서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였다. "Chipered Telegram, Shtykov to Fyn-Si(Stalin) Regarding the Meeting with Kim Il Sung"(August 3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697(검색일: 22. March. 2014).

57) "Chipered Telegram from DPRK Leader Kim Il Sung And South Korean Communist Leader Pak Heon-Yeong to Stalin(Via Shtycov)," (September 29,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58(검색일: 11. May. 2014).

다. 특히, 후방총국장과 병기생산국장의 지시불이행, 민족보위성 일부 부서의 무책임한 후퇴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총퇴각 시 혼란과 무질서의 책임을 일부 군사지휘관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 부족' 문제로 돌렸다.[58]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자강도 강계시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3단계의 전쟁 과정 전체를 정리하여 각 정파별로 두루 책임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의 책임 추궁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전쟁 기간 조선인민군 최고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던 만주파의 전시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계파별로 분산시켰다. 둘째, 인민군과 로동당 최고 지도부에게 쏟아질 총퇴각의 책임을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쟁 수행을 도맡았던 군단장과 사단장급 현장지휘관들과 지역당의 책임자에게 돌렸다. 셋째, 개개인의 과오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책벌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김일성은 세 가지 책벌 전략을 활용하여 본인과 만주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총퇴각 책임 추궁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59]

11월 7일에는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 총퇴각 책임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외무성 부상 박길룡의 증언에 따르면, 만포진의 소련대사관 연회장에서 총퇴각의 책임 문제를 놓고 둘 사이에 심한 고성이 오고 갔으며, 흥분한 김일성이 잉크병을 벽에 집어던질 정도로 격렬했다고 한다. 이날 언쟁에서 김일성은 전쟁 초기 저조했던 빨치산 활동을 지적하였고, 이에 박헌영은 낙동강 전선에 대부분의 병력을 집중시켜 후방 방어에 실패한 김일성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60] 위의 상황들은 김일성이 무력통일 실패에 대해 큰 부

58) 김일성,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김일성 저작집』, 제6권, 154~157쪽.

59) 김일성, "현 정세와 당면과업," 『조선중앙련감 1951~1952』, 28~31쪽.

담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총정치국의 설립에는 수세에 몰린 김일성의 국면 전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주파가 장악한 문화훈련국과 군사위원회 중심의 군내 정치지도체계를 '당적 지도'를 바탕으로 한 총정치국 중심의 정치지도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자신이 총괄해오던 군사지휘권한의 일부를 분산시키려 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집중되던 총퇴각의 책임도 분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총정치국의 설립으로 당장은 김일성의 권한이 축소된 것 같아 보이지만, 향후 당내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군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 분명했다. 김일성에게 총정치국 설립은 '정치적 투자'였던 셈이다.

3.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

1) 만주파의 위상 추락과 '권위차용전략'

총퇴각으로 김일성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놓였다. 만주파 지휘관의 군내 위상이 추락했고, 인민군의 군사규율은 붕괴되었으며, 무력통일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부상하면서 김일성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어떤 방법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특히 개전 초기 만주파 지휘관들의 작전 실패는 연안파 지휘관들과 비교되며 김일성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

60)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456~457쪽.

개전 초 인민군은 연안파 김웅이 이끄는 제1군단과 만주파 김광협이 이끄는 제2군단이 각각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군단의 공격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부대는 서울 방면에서 방어 중인 적의 측면을 포위하고, 적 방어진지를 돌파해 들어간 제3, 4, 6사단이었다.[61] 특히 연안파 지휘관들이 속한 부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제1군단장 김웅을 비롯해 제6사단의 호남 우회 침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방호산, 서울 진공과 대전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제4사단을 지휘한 리권무는 제1군단의 대표적 연안파 지휘관이었고, 이들이 거느린 부대원들 상당수는 중국의 국·공 내전에서 단련된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 전쟁 중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연안파 지휘관 방호산, 리권무에 대한 찬사는 신문에도 수차례 실렸다.[62] 이에 비해 만주파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제1사단은 국군 1사단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 진격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결국 인민군은 행주나루를 통해 퇴각하는 국군을 섬멸하지 못했고, 제1사단의 지체 소식을 접한 김일성은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제1사단장을 체포하여 총살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격노하였다.[63]

제2군단은 조공집단으로서, 화천 - 양구 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6월 28일까지 수원을 점령하고, 제1군단과 협력하여 수원 이북의 국군 주력부대를 섬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국군 제6사단의 강

---

61) 황성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서울: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193쪽.

62) "공화국 영웅들의 위훈은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조선인민군』(1950년 9월 4일); "조선이 낳은 공화국 2중 영웅 방호산 동지의 전투적 업적," 『조선인민군』(1950년 11월 27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리권무 군부대의 혁혁한 위훈," 『로동신문』(1950년 12월 26일).

63)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239쪽.

력한 방어와 부대 간 통신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전 당일 춘천 점령 후 수원으로 진출해 제1군단과 연합하여 수원 이북의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64] 수원 이북 차단 작전에 실패한 제2군단에 대해 문책 인사가 단행되었다. 제2군단장에 연안파 주요 인사인 무정이 새로 임명되었고, 군단장 김광협은 참모장으로 강등되었다.[65]

총퇴각 국면에서도 김일성은 체면을 구겼다. 퇴각 과정에서 조선의용군 출신인 방호산이 이끄는 제6사단과 최아립이 지휘한 제12사단, 김창덕이 이끈 제5사단은 싸우면서 질서정연하게 전선을 북쪽으로 옮겨 만주파 지휘관들과 비교되었다.[66] 총퇴각 국면에서 국군 시설에 타격을 가하며, 큰 병력 손실 없이 조직적으로 후퇴를 마친 제6사단장 방호산에게는 11월 15일 자로 이중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다.[67]

만주파 지휘관들의 작전 실패는 인민군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던 만주파의 부대장악력과 전투지휘 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제1군단 소속 연안파 지휘관들은 전쟁 초기 서부 전선 진격과 대전 전투, 호남 우회 기동 작전을 성공시키며 놀라운 전과를 올렸다. 연안파 군지휘관들의 위상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군부 내 주요 업무를 맡은 만주파 항일 빨치산 동지들은 빠른 속도로 추락하였다. 핵심 참모 강건이 1950년 9월 8일에 전사했고, 최춘국, 최창만, 김만익, 조정철, 박정춘, 한창봉 등 김일성의 만주파

---

64) 김재철, "한국전쟁 초기 춘천·홍천지구 전투의 평가," 『동북아연구』, 제24권 제1호(2009), 8~10쪽.

65)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244쪽.

66) 려정, 『붉게 물든 대동강』, 38쪽.

6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에게 드리는 멧세-지," 『조선인민군』(1950년 11월 22일).

핵심 동지들이 전선에서 숨을 거두었다.[68] 최용건은 개전 당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9] 그 결과 만주파의 군내 위상 추락은 불가피했고, 김일성의 위신도 함께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무력통일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일성은 인민군 내부의 원망과 눈총이 자신에게 향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일성은 실추된 군내 영향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고자 했다. 그는 총정치국을 통해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장차 자신의 군내 위상과 통제력을 회복하려 했다. 이와 동시에 인민군 내 '당원확대사업'을 강화해 실추된 지도력과 위상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70] 당원확대사업을 통해 새로 입당한 당원들은 김일성에게

---

68)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524~526쪽.

69) 박헌영의 비서였던 박갑동에 의하면, 1950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개전 문제를 둘러싸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 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최용건이 지적하자, 김일성은 매우 격노하여 낯이 새빨개졌다. 이 사건 이후 최용건은 일체의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전쟁 초기 민족보위성의 임무는 후방지원 담당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박갑동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 진술도 있다. 전 조선로동당 조직부장 박영빈은 1996년 정창현과의 인터뷰에서 최용건이 개전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개전 후 최용건이 후방사업을 맡은 것은 그의 군사지식 수준이 매우 낮아 김일성이 오히려 믿고 배려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용건의 군사지식이 부족했다는 박영빈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최용건은 20대에 중국의 명문 군사학교였던 황푸군관학교에서 수학한 후, 교관으로도 활동했었다. 소련 극동군 제88여단 시절에는 김일성보다 서열이 높은 부참모장으로 활약하였다. 입북 후에는 민족보위상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직책을 역임하였다. 중국과 소련에서 오랜 기간 군사 경험을 쌓은 최용건이 전쟁 초기 공격작전 관련 주요 임무에서 배제된 정황은 개전과 관련한 그의 입장이 소극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서울: 1988, 바람과 물결), 72쪽;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서울: 선인, 2011), 198쪽; 고명균, "한국전쟁 기간 만주파의 권력장악과정 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49~51쪽 참고.

열렬한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조선로동당 당원으로서 명예와 특권을 보장받았다. 말단 병사가 조선로동당 당원이 된다는 것은 출세를 보장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들에게 김일성은 당원 가입을 허락해준 은인(恩人)이었다. 당권 장악과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인민군 내 당원확대사업을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당적 지도를 책임지는 총정치국장에 누구를 임명하는가의 문제는 김일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군내 정치지도의 총책임자로서 당과 군을 매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지니고, 인민군 내부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했다. 그리고 김일성 본인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며, 무력통일 실패의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무너진 군내 기강을 바로잡고, 군 내부의 불만을 통제하고자 했다.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전쟁을 준비한 개전(開戰)의 주역이었고,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71] 전쟁 준비 초기부터 김일성과 함께 전쟁을 기획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군사

---

70) 당원확대사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던 곳은 군이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인민군 내 입당자는 14만여 명으로 이 기간 전체 입당자 45여만 명의 3분의 1에 달하였고, 전체 조선인민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422쪽.

71) 박헌영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소비에트 민정국장 레베데프(Nikolai Lebedev) 소장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박헌영은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광범위한 인민대중, 좌익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도정당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커다란 권위를 누리고 있으며,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실질적이며 사상적인 지도자이다”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30쪽.

위원, 내각 부수상 및 외무상은 박헌영이 당·군·정에서 맡은 공식 직책이었다. 공식적인 북한 권력의 2인자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박헌영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실질적인 '무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조선인민군 내 남로파 출신의 군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72] 남로파의 주요 무력인 빨치산도 전선 이남에 고립된 채 힘겨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었다.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을 맡는다 해도 군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김일성은 '권위차용전략(Strategy of Authority Brrowing)'을 실행하였다. 총정치국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인민군 내 세력기반을 갖지 못한 박헌영에게 부여함으로써 총정치국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박헌영의 손발은 묶되, 그의 권위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인민군 내에 총정치국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였다. 군내 정치지도와 당조직 지도의 실질적인 역할은 각급 정치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73] 야전 군단 및 사단 정치부를 중심으로 일간지 형태의 자체 『전선소보(戰線小報)』[74]가 발행되었고, 초급선동원들의 교제로 담화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75] 당의 장성에 큰 기여를 하는 민청단체에

---

72)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의 핵심 지휘관은 대부분 만주파가 차지하였다. 전선에 배치된 인민군 7개 사단, 21개 보병연대 중 4개 사단, 10개 연대의 지휘관이 조선의용군 출신이었으며, 예하 연대장 및 참모는 80%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정병일,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서울: 선인, 2012), 236쪽.

73) 김일성은 1951년 3월 6일 군단, 사단정치부장회의에서 정치일군들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부장들에게는 부대와 구분대에 자주 내려가 하급 정치일군들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 『김일성 저작집』, 제6권, 319쪽.

74) 방호산이 지휘하던 제5군단에서는 『전위』, 5군단 예하 제6사단에서는 『근위』를 발행하였다.

<표 1> 한국전쟁 기간 총정치국의 주요 정치사업

주요 사업	사업 내용
기관지(신문) 및 전선속보 발행	- 일간지 『조선인민군』을 발행하여 전선 상황 및 내각과 최고사령부의 명령과 지시, 국내외 상황 등을 중대급까지 한 부씩 배포. - 전선 상황과 주요 지침을 알리기 위해 일간 『속보』를 발행해 하급 전사들까지 전파.[77]
정치상학 교재 발간	- 군관, 하사관, 전사를 대상으로 『정치상학』 교재 제작, 배포. - 정치상학용 김일성, 김두봉 연설집 발간. -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주관하에 강연 자료 책자 발간.
시집, 소설집, 노래집 발간[78]	- 군무자를 대상으로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해 입선작을 책으로 발간. - 군가와 행진곡,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엮어 노래집 제작.
전시 임무수행능력 및 정치 수준 심사	-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1951년 1월 군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심사 및 검열사업 시행.
'적 비행기 사냥꾼' 운동[79]	- 김일성의 호소에 따라, 1951년 1월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발의로 보병연대마다 2~3개씩 '적 비행기 사냥꾼조'가 조직되어 미군 저공비행기에 대해 기총사격 실시.
'모범중대운동'[80]	- 총정치국 주관하에 모범중대평정기준조항을 만들어 각 중대들을 평정하고 합격한 중대와 중대원들에게 모범중대기와 군인표를 수여함.

대한 지도 사업도 각급 정치부와 당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76] 군단 및 사단 정치부장들은 예하 부대에 당사업 운영과 회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각급 정치부가 일선에서 정치사업과 당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총정치국은 정치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총정치국의 주요 정치사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75) 제256군부대 정치부, 『담화재료집』, RG242 SA2012, Box6, Item#22.

76) 김재욱,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지령 제104호－정치기관 정치부대장 및 당단체들의 민청단체 사업지도에 있어서의 결함퇴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1951. 6.27)," RG242 SA2012 Box6, Item#14.

자료의 부재(不在)와 혼재(混在)로 한국전쟁 당시 총정치국의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노획문서와 북한의 공식 문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Razuvaev)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총정치국의 실질적 역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쟁 기간 총정치국은 정치지도용 책자와 교본, 신문을 발간해 각급 부대에 보급했고, 인민군 내 선전활동과 캠페인 조직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총정치국이 독자적으로 군내 정치사업을 추진하거나, 군사지휘관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1951년 초에 하달된 "최고사령관 명령 제129호의 집행을 위한 세부 지령"에서 "총정치국은 1951년 1월 중으로 장령들과 군관들의 사업능력 및 정치적 수준을 검정하는 심사사업집행에 참가하여 군관들을 검정하는데 지휘관들을 방조하여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81] 정치지도 및 검열사업에서 총정치국이 독자적인 판단과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군사지휘관의 결정과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로서 기능하도록 요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총정치국장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군내 정치지도와 당조직 지도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였지만, 실제 역할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세부 지령을

---

77) 『속보』, RG242 SA2010, Item#69.

78) 『시집－군무자들의 입선작품집』, RG242 SA2011, Item#9-60;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RG242 SA2011, Item#9-7; 『전투원들에게 주는 소설집』, RG242 SA2012, Item#103.

79)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79쪽.

80) 김일성, "모범중대운동을 벌릴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에게 한 훈시(1951.10.29)," 『김일성 저작집』, 제6권, 464~470쪽.

81) "최고사령관 129호 명령 집행에 대하여," 『정치상학제강철』, RG242 SA2010, Item#59.

하달하거나 지침을 이행하는 등의 부차적인 임무수행에 한정되었다. 예하 정치부에 대한 지도 권한 외에 전선사령부나 총참모부를 감시·통제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82] 총정치국 주재 정치기관장 협의회에서 '군내 당·정치사업에서의 왜곡현상'을 지적하며 지도훈령이나 명령의 발포를 요청했지만 최고사령부와 당중앙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다.[83]

---

82) 정성장은 1951년 4월 26일 김일성이 잡지 『군사지식』의 편집진이 야기한 '군사행동 개시와 관련된 역사적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총참모부와 총정치국 간부들이 함께 토의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토대로 총정치국이 총참모부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성장의 주장은 당시 사건의 맥락을 검토해봤을 때,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는 당조직에서 제기한 『군사지식』 편집부의 문제에 총참모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도 총참모부가 정상적인 지도를 하지 않았고, 편집사업에 대한 검열과 통제사업도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군사지식』 편집부의 과오 못지않게 총참모부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민족보위성에 소속된 문화훈련국과는 달리, 인민군 내 '독자적 위상'을 지닌 정치지도기관으로서 '최고사령관 명령'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었던 총정치국이 총참모부를 검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총참모장에게 지시를 내려 총정치국 일꾼들과 토의하여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총정치국을 대책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수습하려 한 것이다. 이는 '총정치국의 위상이 상승한 결과'라기보다는 '총정치국의 역할이 제한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총정치국과 총참모부가 '대등한 지위'에 놓였다는 것은 '최고사령관 제129호 명령 집행을 위한 세부 지령'에서 비상사고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절차를 총정치국과 총참모부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18쪽;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83쪽; 김일성, "잡지 『군사지식』 편집부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에게 준 지시(1951.4.26)," 『김일성 저작집』, 제6권, 364~369쪽; "최고사령관 129호 명령 집행에 대하여," RG242 SA2010, Item#59.

83) 중국인민지원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한 일부 군관들이 부대지휘와 인원교육에서 유격대식 방법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여 총정치국 주재 정치기관장 협의회에서 비판받았다.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78~82쪽.

박헌영도 총정치국장 직위에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1년 2월 8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3주년 기념대회에서 박헌영은 정치일꾼들에게 "우리 인민군 정치일꾼들은 항상 자기가 모범적으로 전 부대를 애국주의와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격발시키며 군대의 물질적 및 정신적 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총정치국장으로서 자신의 직속부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전선 후방의 빨치산들에게는 투쟁목표와 투쟁방향, 세부적 투쟁지침들까지 상세히 지시했다.[84] 박헌영이 인민군 내 세력 확장을 기대했다기보다, 여전히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51년 5월에 이르면 총정치국장으로서 박헌영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김재욱이 총정치국장 직무를 대리하였고 박헌영은 외무상 역할에 몰두하였다.[85] 6월 이후 휴전회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외무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외무상 직책은 박헌영에게도 자신의 고립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헌영이 김일성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 소련 지도부와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외무상 직책을 활용하는

---

84) 박헌영, "조선인민군 창건3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보고," 『근로자』, 제2호(1951), 46~47쪽.

85)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6주년 기념축전과 히틀러 파시스트 멸망 기념축전이 1951년 5월 6일과 8일에 각각 외무상 명의로 발송되었다. 또한 "미군이 세균전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는 외무상 명의의 성명과 미군사령부가 공개한 '명령' 문건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외무상의 서한이 유엔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8일과 18일에 각각 발송되었다. 5월 들어 외무상으로서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서울: 역사비평사, 2004), 457쪽.

것이었다. 박헌영은 외무상으로서 소련대사관과 자주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처지와 곤란함에 대해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86] 동시에 스탈린에게는 자신의 '필요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하였다. 박헌영은 1951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 평양시 경축대회 연설에서 스탈린을 "천재적 령도자",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인 위대한 쓰딸린대원수"라고 칭하며, 소련의 발전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소련의 원조, UN 총회에서 소련대표단의 군사력 축소제안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87] 스탈린에 대한 박헌영의 찬사와 추종(追從)은 전쟁 내내 지속되었다.

한편, 후임 총정치국장 김재욱은 1945년 12월에 허가이, 방학세, 박의완, 강상호, 기석복 등과 함께 입북한 소련파 인사로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과 평남도당위원장, 초대 내각의 농림부(副)상을 역임하였고, 개전 직후에는 제1군단 문화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총정치국이 설립되면서 박금철과 함께 부국장을 맡았다.[88]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내각 부수상을 역임하면서 당·정의 2인자로 불렸던 박헌영과는 급이 다른 인물이었다. 김일성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효용가치는 점차 소멸되었다. 박헌영도 총정치국장 직위에 별 미련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 취임 후 총정치국의 역할은 김일성의 군 통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

86) 전 내무부상 강상호의 증언에 따르면, 박헌영은 소련대사관을 출입하며 허가이와 당노선 등을 협의했고, 종종 김일성의 독주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두 사람의 이 같은 동향은 즉시 김일성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강상호, "내가 치른 북한 숙청－허가이의 죽음 4," 『중앙일보』(1993년 2월 1일).

87) 박헌영, "五·一절 기념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보고," 『청년생활』, 제5호(1951), 10～15쪽, RG242 SA2012 Box5, Item#217.

88)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154쪽.

되었다. 김재욱은 총정치국장 취임 후 군사단일제 원칙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89] 총정치국장이 직접 군사단일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1952년 7월 7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지속되는 군사단일제 위반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군사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사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군사위원은 당과 정부의 전권 대표로서 해당 단위의 당 정치사업과 군사 사업을 지도·통제하는 책임을 맡았다. 또한 매달 군사위원회를 열어 부대의 당 정치사업 상황과 전투준비, 전투훈련, 부대관리, 군인들의 정치·도덕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90] 이는 총정치국이 도맡아온 군내 정치지도 권한을 만주파 지휘관이 중심인 군사위원회로 위임시킨 조치였다.[91] 김일성이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2)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

빨치산은 박헌영과 남로파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었다. 정규군인 조선인민군과는 별개로 박헌영과 남로파가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정규 게릴라 부대였다. 박헌영과 남로파의

---

89) 김재욱은 총정치국에서 발간한 소책자에서 “모든 당원은 군사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토의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지휘관의 명령을 어떻게 더 훌륭하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 내 로동당단체들의 제과업: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에게 주는 참고자료』, 8~9쪽. RG242 SA2012, Item#114.

90) 김일성,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7권, 307쪽.

9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424쪽.

위상은 빨치산의 투쟁범위와 강도, 투쟁빈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총정치국 설립 당시 박헌영의 정치적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이 와다 하루끼가 주장하듯 수세적 입장에 놓인 김일성이 권력 일부를 박헌영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한 김일성의 전략적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이유가 전선 이남의 빨치산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김용현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에 대한 김일성의 신뢰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김일성이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하게 된 중요한 배경 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1950년 6월 초 박헌영과 리승엽은 강동정치학원 출신 정치공작원들을 각 도별로 침투시켜 인민군의 남침 때 호응하도록 하였고, 6월 25일 인민군의 전면 남침 시 북한에 남아 있던 남로파 유격대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동해안을 통해 남한에 침투시켰다.[92] 김일성은 1950년 6월 26일 밤 평양방송 연설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남북한의 각계각층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남반부 남녀 빨치산에게 "유격운동을 일층 맹렬히 더욱 용감히 전개하며 유격대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망라하여 해방구를 확대하며 또는 창설하며 적의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 소탕하며 적의 작전 계획을 파탄시키며 적의 참모부들을 습격하며 철도 도로 교량들과 전신 전화선 등을 절단 파괴하며 각종 수단을 다하여 적의 전선과 후방련락을 차단하며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복구하고 인민군대에

92) 김남식, 『남로당 연구』(서울: 돌베개, 1984), 441~442쪽.

적극 협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93]라고 지시하였다. 김일성의 연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라디오에서 방송되었고, 연설 전문은 대부분의 주요 기관지에 실렸다. 하지만 개전 초기 남한 내 무장유격투쟁은 잠잠했다. 박헌영이 강조했던 20만에 달하는 인민무장봉기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리산과 호남 일부 지역, 경남·북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몇 개의 유격대만이 인민군의 남침에 호응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빨치산들이 인민군의 남침에 맞춰 호응하기에 당시 그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남한 내 빨치산 부대 대다수가 1949년 말부터 진행된 대토벌로 인해 더 이상 유격투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1950년 3월 김삼룡과 리주하 등 서울지도부가 체포되면서 남로당 조직도 대부분 파괴되었다.[94] 남한 내 투쟁 역량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인 데다, 북에서 파견된 정치공작대원과 유격부대원의 지원도 기대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빨치산 투쟁은 7월 중순 이후에야 조금씩 활발해졌다.[95] 전시에 발간된 내무성 기관지 『보위』에 7월 중순부터 빨치산들의 활동을 다룬 기사가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96] 8월 들어 전선이 낙동강 부근에서 고착화되면서 빨치산의 활동범위는 영남 지역으로 국한되었다. 활동범위가 협소해져 노출의 위험

---

93) 김일성,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5쪽.

94)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10), 406쪽.

95)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북악사론』, 제10집(2003), 459~463쪽; 장성진, "6·25전쟁 초기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2012), 83~87쪽 참고.

96) "전남방면의 인민유격대 계속활동범위를 확대강화," 『보위』(1950년 7월 21일); "경남지구 인민유격대들 계속 맹활동 전개," 『보위』(1950년 7월 22일); "충천의 기세로써 투쟁하는 경남북방면의 인민유격대", "지리산인민유격대 괴뢰경찰 잔존세력 소탕하며 진격," 『보위』(1950년 7월 25일).

이 커진 빨치산들은 자연스레 위축되었다. 빨치산 투쟁에 대응한 한·미의 연합정책의 시행도 활동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97]

한국전쟁 초기 빨치산 활동은 박헌영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50년 8월 11일 슈티코프는 전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소련 외무상 그로미코(Gromyko)에게 보고하면서, 남한 내 빨치산 활동과 관련하여 "개전 후 빨치산 활동은 미군, 국군과 직접 전투를 치루기보다는 관공서 파괴, 경찰서 습격, 교각 파괴, 반역자 살해 등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빨치산의 역량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빨치산 활동은 남한과 미군의 후방을 뒤흔들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기에 역부족이다"라고 기술하였다.[98] 남·북로동당 합당 이후 권력 2인자로 불러지던 박헌영의 위상에도 점차 거품이 걷히게 되었다. 총퇴각으로 김일성이 수세에 놓인 것은 틀림없으나 박헌영의 처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박헌영이 김일성을 압박해 총정치국장에 올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쟁 전 김일성은 빨치산의 실질적인 역량을 의심하면서도, 빨치산 투쟁이 박헌영과 남로파의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은 견제하려는 이중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1949년 9월 14일 소련 임시 대리대사 토운킨(Tunkin)이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에는 김일성, 박헌영과의 면담 내용이 적혀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38선 이남의 빨치산 활

---

97) 한국 정부는 미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원들이 피난민 대열에 섞여 후방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피난민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경찰관 전투대를 편성하여 적극적인 공비 토벌에 나섰다. 장성진, "6·25전쟁 초기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72~73쪽.

98)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s"(August 1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16(검색일: 24 April. 2014).

동에 큰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박헌영은 빨치산 투쟁은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견을 밝혔다.[99] 빨치산 활동을 놓고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 극명한 시각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은 1949년 11월 중순 강동정치학원을 방문하여 박헌영의 남조선 혁명 전략과 실패로 드러난 '9월 대공세'[100]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강건은 강동정치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남조선 해방의 길은 오직 인민군대의 전면 진격에 달려 있으며 주력인 인민군대가 진격하면 남조선에 남은 빨치산이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파업을 주도하는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전해들은 박헌영과 리승엽은 격노했으나 대공세의 실패로 남한 내 빨치산 조직의 붕괴가 워낙 심각했던 터라 감정 표출 외에 별 다른 대응은 하지 못했다.[101] 강건은 만주파의 핵심 인물로서 무력 남침을 주장하는 강경론자였다. 북한 내 남로파의 세력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정치학원에서 남로파의 전술 실패를 직접 비판한 강건의 발언에는 남로파를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빨치산의 투쟁역량에 대한 김일성과 만주파의 강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

99) "Telegram from Tunkin to the Soviet Foreign Ministry in Reply to 11 September Telegram"(September 14, 194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Origins, 1945~1950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132(검색일: 20 April. 2014).

100) 1949년 6월부터 1950년 11월까지 남로파의 주도하에 9월 대공세가 펼쳐졌다. 만주파의 국지전 전술과 병진하여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염려한 소련의 반대로 38선 부근에서의 국지전 전술은 실행되지 못했고, 결국 총공세는 실패하였다. 박병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서울: 선인, 2010), 300~301쪽.

101) 위의 책, 311~312쪽.

전쟁 발발 전 김일성은 인민군 내에 게릴라 부대를 창설하였다. 제766부대, 제945부대, 정규사단 내 게릴라 대대 등을 운용함으로써 38선 이남의 빨치산에게 의존해오던 후방교란작전을 인민군 정규 게릴라 부대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102] 게다가 남로파가 주관해오던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도 자신이 직접 지도하려 했다. 최고사령부에 '유격지도부'를 설치하여 직접 지시 사항을 하달하였고,[103] 총퇴각 이후 후방에서의 유격대 활동에 대해 제2군단이 통일적으로 지휘할 것을 지시하였다.[104] 스탈린이 강조했던 "근거지를 강화해 빨치산 투쟁 역량을 신장시키는 방안"은 자칫 박헌영과 남로파의 세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 내에 게릴라 부대를 편성하는 우회적 방안을 선택하였다. 김일성은 빨치산 투쟁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박헌영과 남로파에 대한 견제의 고삐는 풀지 않았다. 빨치산 투쟁에 대한 김일성의 불신과 남로파에 대한 견제 심리는 역설적으로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총퇴각 국면에서 위상 추락을 경험한 김일성은 총정치국을 설립해

---

102) 북로당계는 남로당계와 달리, 정치교육에 근거하여 육성된 지구당 게릴라보다 정규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게릴라 부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양영조, "6·25전쟁 발발 전후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군사연구』, 제136집(2013), 104~105쪽.

103) 김일성은 1951년 1월 25일 자 제74호 명령에서 '생산유격대' 조직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며 최고사령부 유격지도부장 배철에게 조직·지도의 책임을 맡겼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제1권(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29~31쪽.

104) 당시 제2군단은 강원도 일대에서 '적후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김일성은 제2군단장에게 후퇴하여 들어오는 부대와 군인들을 '제2전선'에 편입시키고, 적후에서 유격전을 벌여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민유격대 활동이 군단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움직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일성, "적후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제2군단장에게 준 지시(1950.11.17)," 『김일성 저작집』, 제6권, 167~174쪽.

자신의 군사지휘권한 일부를 분산시키려 했다. 총정치국의 설립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일보후퇴'였다. 김일성은 자신에게 대항할 만한 여력이 없는 인물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권한 분산의 효과를 최소화하려 했다. 이러한 구상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박헌영이었다. 조선인민군 내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했던 박헌영은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과 지하당의 무장봉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방에서의 상황은 박헌영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전쟁 개시 전부터 빨치산 투쟁에 별다른 믿음을 갖지 않았던 김일성에게 기대 이하의 빨치산 투쟁은 박헌영을 '실질적인 위협이 제거된 상대'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은 '군내 정치지도 총책임자'라는 중요한 직책을 위임하면서 권력 분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던 것이다.

3) 소련의 영향

스탈린은 김일성이 지휘하는 조선인민군의 정규작전을 주축으로 빨치산과 지하당 조직들의 후방교란이 결합된 '배합전'을 줄곧 강조하였다. 1949년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결정된 훈령이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전달되었다. 훈령에서는 인민군의 남침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사적 남침을 불허하고 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남한 내 빨치산 투쟁을 확대하고, 해방구를 창설하여 전 인민을 무장봉기에 대비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슈티코프에게 훈령의 내용을 김일성뿐만 아니라 박헌영에게도 빠짐없이 전달하라고 명령하였다.[105)]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헌영은 남한 내 강력한 빨치산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남로당원 20만이 대중봉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일성도 적극 호응하며 스탈린을 안심시켰다.[106] 박헌영의 주장에 호응했다고 해서,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남한 내 빨치산 투쟁 역량을 강화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장된 언사이자, 미국의 개입을 염려하는 스탈린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1950년 초 남한 내 빨치산의 투쟁 역량이 대부분 소멸된 상황에서도 소련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1950년 5월 6일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에서는 3월 말 무사히 입북한 빨치산 대장 김달삼의 보고서를 외무상 그로미코에게 발송하였다. 김달삼은 보고서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빨치산 제1병단의 투쟁성과를 나열하며, 빨치산들이 직면한 상황과 한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혹한 토벌 속에서도 빨치산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민대중들의 지원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빨치산들이 농촌의 소작농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빨치산 투쟁에 호응하여 언제든지 봉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만 빨치산 투쟁을 조직함에 있어 안정적 해방구를 건설하지 못한 점, 노동자와 군대 내 기반이 부족한 것을 결점으로 지적하였다. 소련대리대사 이그나티예프는

---

105)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September 24,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Origins, 1945~1950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133(검색일: 26 April. 2014).

106) 에프게이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53~55쪽.

김달삼의 보고에 대해 “부정확하고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빨치산 투쟁에 대해 숙고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라고 평했다.[107]

김일성이 남침 의사를 내비치는 내내 스탈린은 조선인민군의 강화와 함께 남한 내 해방구 설치 및 빨치산 투쟁 강화를 지시하였다. 빨치산 투쟁을 강조했다고, 박헌영을 김일성에 버금가는 인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탈린의 지시는 소련에 의존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김일성에게 기본에 충실하라는 충고의 메시지이자, 남로파와 협력하여 전쟁을 수행하라는 권고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되, 지하당 활동 경험이 많은 박헌영이 김일성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일성이 젊고 유능한 지도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한 내 지하당 조직 및 빨치산 투쟁에서는 경험 많고 노련한 박헌영의 능력을 신뢰하였다.[108] 비록 박헌영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배합전을 구상하던 스탈린에게 빨치산 투쟁과 인민봉기를 강조하던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전쟁을 수행해나갈 핵심 지도자로 비쳤을 것이다. 전쟁 수행과 관련된 주요 지시 사항을 전달할 때,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함께 알리도록 명령한 사실에서도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50년 10월 1일 총퇴각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김일성에게 스탈린

---

107) “Soviet Memorandum ‘The Partisan Movement in South Korea’”(May 6,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Origins, 1945~1950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07(검색일: 24 April. 2014).

108) 스탈린은 전쟁 전 남로당원 20만 명이 무장봉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박헌영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병엽,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서울: 선인, 2010), 305쪽.

의 비밀 전보가 전달되었다. 스탈린은 전선 후방을 빨치산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로 파괴, 지휘부 및 통신시설 파괴, 적 장교 및 군에 대한 공격 등 테러와 파괴 활동을 통해 연합군이 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시하였다.[109] 전선 후방의 비정규전을 강화하라는 스탈린의 권고는 박헌영과 남로파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었다. 역설적으로 총퇴각 기간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지만, 전선 이남의 빨치산 세력은 확장되었다. 전선에서 낙오한 인민군들, 후퇴하지 못한 당조직원, 인민군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이 빨치산에 결합하였다.[110] 수적으로 증가된 빨치산은 새로운 투쟁의 구심점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박헌영과 남로파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선 상황상 빨치산에 대한 남로파의 지도·통제는 불가능했고, 인적·물적 지원도 어려웠다.[111] 전선 이남의 빨치산들은 사실상 고립된 채 힘겨운 생존투쟁을 벌여나가야 했다. 박헌영의 어깨에 실린 힘의 실체는 '상징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권고가 박헌영의 실질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

109) "Telegram from Feng Xi(Stalin) to Soviet Officials in Pyong Yang"(October 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12(검색일: 25 March. 2014).

110) 호남지구에 침입했던 제4·6·7·9·10사단의 주력부대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통해 간신히 북상했으나 낙오된 1만 명은 지방유격대에 합류하였다. 각 도당위원회에서도 모든 조직들을 자기 도내의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 김남식, 『남로당 연구』, 455~456쪽.

111) 지역별 군사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선 이남의 유격대를 '지대'로 개편하라는 최고사령관 명령이 1951년 1월에 하달되었으나, 명령 전달을 위해 편성된 부대는 10월이 되어서야 지리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413~414쪽.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을 강화하라는 스탈린의 권고는 김일성에겐 추상같은 명령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게 남은 역량 전부를 쏟아 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일성은 전략적 대응의 차원에서 군내 정치지도 및 당조직지도 권한을 박헌영에게 양도하였다.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스탈린의 권고를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박헌영과 함께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스탈린이 제기할 수 있는 무력통일 실패의 책임 문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두는 효과도 있었다.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인민군 내 남파 유격부대를 양성하거나 남로파 주도의 '남파 유격대 양성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빨치산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남로파의 몫이었다.

전쟁 준비에서부터 전쟁 수행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소련의 지원 없이는 전쟁 준비를 할 수 없었고,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 해도 스탈린의 최종 승낙을 받아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에서도 소련의 영향은 중요한 변수였다. 총정치국장 임명에 소련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탈린이 후방의 빨치산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점, 박헌영과 협력하여 전쟁을 수행할 것을 강권한 점으로 판단해볼 때,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에 소련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4. 결론

오늘날 북한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총정치국이 북한 현대사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며 성장해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정치국 설립 초기의 '위상정립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총정치국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초대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총정치국의 설립과 박헌영의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총퇴각기에 총정치국이 설립된 배경을 대내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남로파의 수장이자 북한 권력의 2인자로서 김일성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박헌영이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를 위해 설립한 총정치국의 수장에 임명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총퇴각 위기에 놓여 있던 1950년 10월 초, 인민군 내 정치지도를 담당하던 문화훈련국이 총정치국으로, 각급 부대의 문화부가 정치부로 개편되었다. 총정치국과 예하 정치부는 기존의 문화훈련국과 문화부에서 담당했던 군내 정치지도 권한과 함께 당사업 지도 권한을 행사하였다. 개편 이후, 각급 정치부의 정치지도 권한은 이전보다 강화되어 조선인민군 창군 이래 유지되어온 '군사단일제'의 원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총정치국의 설립 배경으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 첫째,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된 총퇴각 상황 속에서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군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총정치국을 설립했다"라는 북한 공식 문헌상의 주장이다. 군내 규율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련식 총정치국 시스템을 도입해 정치지도를 강화하고, 당사업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여 군내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둘째,

무력통일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의 부상도 총정치국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총퇴각으로 수세에 몰린 김일성이 만주파가 장악한 문화훈련국 중심의 군내 정치지도체계를 '당적 지도'를 바탕으로 한 총정치국 중심의 정치지도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자신이 총괄해오던 군사지휘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집중되던 총퇴각의 책임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스탈린은 총퇴각 상황에 직면한 북한지도부에게 견고한 방어 조직 구성을 위한 강건한 지도부로 재건할 것을 주문하였다. 총퇴각 당시 군사규율이 붕괴되고, 무력통일 실패의 책임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북한 지도부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라는 스탈린의 권고는 강력한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군사규율 붕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던 김일성이 스탈린의 권고를 계기로 기존의 정치지도 방식을 소련식 총정치국에 의한 지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민지원군 참전과 조·중연합사령부 설치 문제는 총정치국 설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헌영이 초대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배경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내적 요인으로 첫째, 총퇴각기 만주파의 군내 위상 추락을 극복하기 위한 '권위차용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인민군 내 세력기반을 갖지 못한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총정치국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박헌영의 군내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그의 권위를 활용하여 조선인민군 내에 총정치국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한 것이다. 박헌영의 재임기간에 총정치국은 최고사령관 명령에 대한 세부 지령을 하달하거나 지침을 이행하는 등의 부차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군내 정치지도와

당조직 지도의 실질적인 역할은 각급 정치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둘째, 역설적이게도 전선 이남에서 기대 이하의 빨치산 투쟁성과는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총퇴각 국면에서 위상 추락을 경험한 김일성은 자신에게 대항할 만한 여력이 없는 인물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권한분산의 효과를 최소화하려 했다. 이러한 구상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박헌영이었다. 김일성은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이 박헌영과 남로파의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꺼렸다. 당시 계파 간 권력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민군 내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했던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을 맡는 게 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스탈린은 개전 승인을 간청하는 김일성에게 남한 내 해방구를 설치하고, 빨치산 투쟁을 강화하라는 지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김일성은 전선 이남의 빨치산 투쟁을 강화하라는 스탈린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전략적 대응의 차원에서 군내 정치지도 및 당조직 지도 권한을 박헌영에게 양도하였다. 박헌영을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스탈린의 권고를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향후 스탈린이 제기할 수 있는 무력통일 실패의 책임 문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두는 효과도 있었다.

연구 결과, 설립 초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은 인민군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총정치국장 박헌영에 대한 김일성의 '권위차용적 역할기대'와 총정치국장 직책에 대한 박헌영의 '낮은 기대감'이 주된 이유였다. 박헌영은 총정치국장으로서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임기 반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김재욱으로 교체되었

다. 이후 총정치국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로파의 수장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배경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설립 초기 총정치국의 위상정립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실제 권한과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총정치국 예하 각급 정치부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정치지도와 검열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총정치국장으로서 박헌영의 위상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밝혀줄 1차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 부분 간접 증거를 통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 연구의 한계다. 자료의 발굴과 보강을 통한 연구의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대 총정치국장들의 재임 기간에 총정치국의 위상 및 권한 변화의 궤적을 추적해봄으로써 당·군관계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추후 연구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접수: 6월 27일 / 수정: 7월 28일 / 채택: 8월 4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저작집』, 제6,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조선로동당규약』(2010년 제3차 당대표자대회 개정).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2) 논문

김일성, "모범중대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잡지 『군사지식』 편집부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적후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현 정세와 당면과업,"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3) 신문 및 잡지
『근로자』, 제2호(1951).
『로동신문』, 1950년 12월 26일.
『보위』, 1950년 7월 21일~25일.
『조선인민군』, 1950년 9월~11월.

4) 노획문서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내 로동당단체들의 제과업: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에게 주는 참고자료』, RG242 SA2012, Item#114.
『군사지식』, 제2, 3호(1950), RG242 SA2010, Box3, Item2.
『세포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그의 집행에 대하여』, RG242 SA2009, Box10, Item15.
『속보』, RG242 SA2010, Item#69.
『시집-군무자들의 입선작품집』, RG242 SA2011, Item#9-60.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RG242 SA2011, Item#9-7.
『전투원들에게 주는 소설집』, RG242 SA2012, Item#103.
제256군부대 정치부, 『담화재료집』, RG242 SA2012, Box6, Item#22.
제327군부대 정치부, 『전위』, 1951년 5월 10일, RG242 SA2012 Box5, Item#130.
제825군부대(12사단) 정치부, 『전평요강-1951.1.15』, RG242 SA2012, Item#80.
김재욱,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지령 제104호," RG242 SA2012 Box6, Item#14.
박헌영, "五·一절 기념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보고," 『청년생활』, 제5호(1951), RG242 SA2012 Box5, Item#217.
"월말 사업보고 작성에 대한 지도서-조선로동당 인민군27사7련대 당위원회 조직부," RG242 SA2009 Box10, Item#17.
"제2대대 당단체 명령 집행 협조정형에 대하여," 『정치상학제강철』, RG242 SA2010, Item#59.
"조선로동당 제2군단 6련대 2대대 2중대 세포결성 총회 회의록," RG242 SA2009 I, Item#72.
"조선로동당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중기중대세포 회의록," RG242 SA2011, Item#8-10.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 설치에 관한 결정서," RG242 SA2009II, Item37.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 RG242 SA2012, Box5, Item118.
"최고사령관 129호 명령 집행에 대하여," 『정치상학제강철』, RG242 SA2010, Item#59.
허가이,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결정서 제44호," 『성분지시분철』(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RG242 SA2006 Batch301, Item37.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남식, 『남로당 연구』(서울: 돌베개, 1984).
려 정, 『붉게 물든 대동강』(서울: 동아일보사, 1991).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서울: 책세상, 2013).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서울: 1988, 바람과 물결).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2003).
_____,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
박병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서울: 선인, 2010).
_____,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서울: 선인, 2010)
북한연구소, 『북한군사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션즈화(沈志華),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옮김(서울: 선인, 2010).
토르쿠노프, A. V. (Anatory Vasilievich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바자노프, 에프게이·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옮김(서울: 열림, 1998).
하루끼, 와다(和田春樹),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서울: 역사비평사, 2004).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이문당, 1991).
정병일,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서울: 선인, 2012).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13).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서울: 선인, 201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제1권(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홍쉐즈(洪學知),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서울: 고려원, 1992).

2) 논문

고명균, "한국전쟁 기간 만주파의 권력장악과정 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군사』, 제53호(2004).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재철, "한국전쟁초기 춘천·홍천지구 전투의 평가," 『동북아연구』, 제24권 제1호(2009).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운용과 성격," 『북악사론』, 제10집(2003).
_____, "6·25전쟁 발발 전후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군사연구』, 제136집(2013).
이대근, "북한군 총정치국," 『북한의 군사』(서울: 경인문화사, 2006).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10).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군사』, 제83호(2012).
장성진, "6·25전쟁 초기 북한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2012).

_____,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제83호(2012).

황성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3. 국외 자료

1) 단행본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Korean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2) 인터넷 자료

“Ciphered Telegram from DPRK Leader Kim Il Sung And South Korean Communist Leader Park Heon Young to Stalin(Via Shtykov)”(September 29,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58.

“Ciphered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Kim Il Sung”(October 13,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744.

“Chipered Telegram, Shtykov to Fyn-Si(Stalin) Regarding the Meeting with Kim Il Sung”(August 3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697.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September 24,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Origins, 1945~1950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133.

“Soviet Memorandum ‘The Partisan Movement in South Korea’ ”(May 6,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Origins, 1945~1950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07.

“Telegram from Feng Xi(Stalin) to Soviet Officials in Pyong Yang”(October 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12.

"Telegram from Tunkin to the Soviet Foreign Ministry in Reply to 11 September Telegram"(September 14, 194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Origins, 1945~1950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132,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s," (August 11, 195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War 1950~1953 Collecti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16.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s Why Pak Hon-Yong was Appointed as the First Director of General Political Bureau in North Korean Army

Koh, Myeong Gyun(Yeoju Daeshin Middle Scho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ason why Pak Hon-Yong was appointed as the first director of the GPB(General Political Bureau) in the North Korean Army and, based on that, to explain the status and role of the GPB in the Korean War. The GPB was established to straighten up the slack of the army for 'full retreat period'. Pak Hon-Yong, the chief of 'Namropa',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the GPB in the role of supervising the army within the party-organization. This paper examines appointment of Pak Hon-Yong in three points. ① Weakened leverage of Kim Il-Sung within the army caused by 'full retreat' and its 'Strategy of Authority Borrowing' to overcome the crisis. ② The influence of 'partisan struggle' on the southern front. ③ Stalin's advice to emphasize movement of 'district

party' and Partisan struggle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e status and role of the GPB was unsettled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party. The main reasons were Kim Il-sung's 'role expectation of Authority Borrowing' towards Pak Hon-Yong and Pak's 'low self-expectation' about his role as the director of the GPB. In less than a year since he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the GPB, he was replaced by Kim Jae-Wook without leaving any noticeable accomplishment. Afterward, the status of the GPB continued to decline.

Keywords: full retreat period, General Political Bureau, Strategy of Authority Borrowing, partizan struggle